

‘전남형 월 1만원 주택’ 1000채 짓는다

청년 인구 유치·출산을 높이기...도 예산·기금 2893억 원 마련
16개 군 2035년까지 100~200호씩...신혼부부 넓은 면적 제공

10년 거주 출산 때마다 3년 연장

전남도가 청년 인구를 유치·정착시키기 위해 신축아파트 1000호를 지어 10년간 월세 1만원에 공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화순군이 기존 임대 아파트를 1만원에 공급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신혼부부에게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임대기간을 3년 연장해준다. 대상지는 인구소멸지역 16개군으로,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100~200호씩 건립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6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총인구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181만7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중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731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령군 전체 인구의 맞먹는 규모이다. 이에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893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된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 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영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회에서 전남지역 농어촌지방자치단체들의 ‘1만 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된다.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의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정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돕는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주거여건 개선사업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 시·군 간 형평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킬러 문항’ 없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6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치러졌다.

<관련 기사 6면>

이번 평가는 정부의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제) 배제 방침이 나온 이후 사실상 최종 리허설이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한 수능 전 마지막 모의 평가다.

이날 영역별 시험이 끝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대표 강사와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으로 구성된 현장 교사단은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어영역 종료 후 EBS 현장교사단은 “킬러 문항

은 확실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6월 모의 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변별력 있게 출제됐고, 일부 우려와 달리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수학 영역에 대해서도 킬러 문항 유형으로 지목한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결합, 미적분과 같은 특정 과목 선택 수험생에게 유리한 문항, 고교 수준 이상의 학습자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영어에서도 과도하게 추상적인 표현이나 지나치게 관념적인 내용은 배제됐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62일 대장정 돌입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시민과 함께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62일간 대장정에 올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6일 오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특설무대에서 국내외 주요인사,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을 갖고 6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핀란드 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주요 정부기관장, 협회·단체장, 국내외 디자인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Meet Design, Meet People’ (디자인과 만나, 사람과 만나) 콘셉트에 맞춰 코로나-19 이후 100% 대면 행사로 열린 개막식은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식전공연과 ‘만남’을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 융합 공연, 어울림마당 등 시민이 함께 아우러지는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

이 펼쳐졌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1월 7일까지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본전시, 특별전, 국제학술행사, 연계기념전, 체험·이벤트 등이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등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7일부터 비엔날레전시관 3관에서는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인 독일 Red-dot (레드닷)의 피터 제 회장 등 국내외 디자인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디자인포럼, 디자인토크가 3일간 진행된다.

볼거리뿐만 아니라 즐길거리, 체험거리도 다양하다. 메타버스 연계 디자인 체험을 비롯해 카카오택시, 어린이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AI항기터널, 아트페스티벌 등이 진행되며 전시관 광장에서 다양한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3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GWANGJU SOUNDPARK FESTIVAL
A Secret Paradise

2023. 9. 15. FRI ~ 16. SAT 사직공원

9. 15. FRI

노브레인 / 글렌체크
아디오스 오디오 / 박소은 / 이형주
NS JAZZ BAND / 우물안개구리 / Paperboy

9. 16. SAT

크라임넷 / 적재
SURL / KARDI / 다린 / 유다빈밴드
바닥프로젝트 / 퍼플웨일

야구보다 재밌다

YouTube **광주일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충장로 금싸라기 땅 건물 허물고 주차장 ▶7면
- 명량대첩축제...남도의 가을 선물같은 사흘 ▶11면
- KIA 김도영·정해영 패기로 순위싸움 이끈다 ▶18면